

안전투사,  
기업성과를 이루는 밑거름



포스코아는 1974년 설립되어 모터와 변압기용 코어, 그리고 금형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에 쓰이는 모터코어에서부터 가전제품의 가전기기모터코어, 산업용 기계에 들어가는 산업용 모터코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회전 적층 금형개발, 2005년 하이브리드 모터 개발 참여 등을 통해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아 김기원 공장장  
취재 | 임재근 기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 잊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위치하고 있는 포스코아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모터코어,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코어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이곳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기원 공장장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화력발전소를 짓는 현장에서 기계공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입사한 지 4년여가 지난 1994년 고향 천안에 위치해 있는 지금의 포스코아에 금형공으로 이직하고 금형제조현장에서 7년, 현장설비보수 3년, 품질·생산 팀장을 거쳐 천안공장의 안전, 생산, 품질을 총괄하는 공장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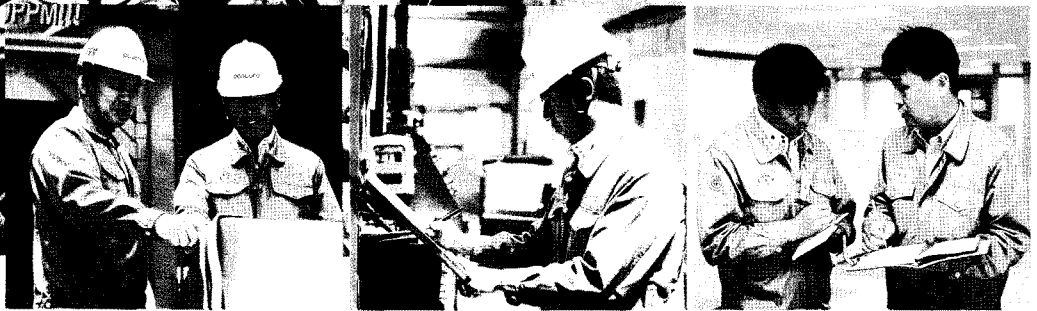
안전과 인연을 맺은 것은 7년 전 팀장을 맡으면서였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자율안전수칙 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관리자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윗사람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경영진이 얼마나 안전에 대해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시원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안전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고, 공장장이 된 지금은 그 생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지켜나갈 것..**

이곳의 공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요인까지도 적은 것은 아니다. 특히 중량물 이동에 따른 다수의 호이스트 사용은 낙하와 협착에 대한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12톤에 달하는 원코일 이동이나 1.5톤의 절단코일 운반에도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해 원격 호이스트로 대체 중에 있다. 또한 금형에 맞추어 코어를 타발하기 위한 다수의 프레스기계의 사용 또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재해발생



◀ 송순섭 사원(上左), 김기원 공장장(上中), 이방관 팀장(上右), 박종민 파트장(下左), 김주형 대리(下右)



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가압 공정 중 코어 가압 작업 부분에는 투명 아크릴 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비산될 수 있는 코어에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장공정에서 반복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최근 대규모 투자로 자동패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김기원 공장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데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나 위험요인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하며, 앞으로 이러한 개선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기업의 몫

안전작업수칙이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교통안전수칙을 모두 잘 지키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키기 어렵거나 또는 힘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키면 불편하거나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때로는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특별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주 낮은 사람이거나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모두라는 점에서 누구나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면 꼭 지킬 수 있도록 작업여건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바로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기업의 몫이라고 김기원 공장장은 말한다.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가 아닌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처럼 사고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주는 일,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이는 비용이 아닌 더 나은 생산성 향상과, 더 높은 품질확보를 위해 기업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한 번 선순환 된 투자는 자전거를 타기 전 밟는 힘찬 첫 페달과 같이 그 힘은 결국 그 기업을 빠른 속도로 정상 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투자가 없는 이상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다시 경영이 어려워 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기원 공장장은 자신 스스로도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 시 하는 마인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재해 없는 포스코아를 위해 근로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